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현 교수방안

王清棟*

1. 서론
2. 시제의 정의와 한국어의 시제
3. 중국인 학습자의 문제점
4. 시제 교수 방안
5. 결론

1. 서론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기타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외국인 학습자들의 가장 큰 한국어 학습 목표는 한국사람처럼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화자가 한국사람처럼 자유롭고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한국어 문장 구성과 문법의 쓰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문법 교육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각기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 문법 교육 단계에서 그 오류 양상도 유사성을 띠게 된다. 특히 중국어권 화자들은 기초과정(자음, 모음)을 시작으로 해서 학습 단계가 점차 중,고급으로 높아져도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문법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한국어 교수현장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兼任助理教授

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제 표현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중급, 고급학습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제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제에 관한 교수 방안이 한국어 교육 방법론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¹ 또한 시제는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그리고 종결어미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제 표현의 오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정확하고 능숙한 한국어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제 부분에 대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사용에 한하며, 상(相)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번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제 사용의 오류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으로 아직 시제에 대한 정의나 연습이 충분하지 못한 초급 학습자들은 제외하였다.

실험 대상은 국립대만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을 250시간 정도 수강한 학습자들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들 모두 중국어 화자로서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내용은 학습자의 시제 사용법을 알기 위해 <표1 한국어의 시제 분류>에 기술된 예문을 바탕으로 각 문장의 기본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어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밑줄 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응답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였다.²

2. 시제의 정의와 한국어의 시제

¹ 중국어는 시제의 문법적인 형태가 없는 언어로서 한국어의 시제 표현을 중국어로 나타내고자 할 때 시태조사와 같은 상의 표지 외에 사건시를 명시하는 시간사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의 시제적 의리를 살리기 위해 부사, 조동사, 동사 등을 보태어 표현해야 한다.

² <표1>한국어 시제의 분류>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직관과 중국인 화자의 직관이 서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이를 채택함을 밝힌다.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하라.)

한국어의 시제는 상(相), 서법(敘法), 양태(樣態)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관점으로 해석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보면 시제는 시간을 표시하기도 하고 화자의 태도나 무표적인 경우도 있다. 보통은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시간지시의 일반적으로 표현으로 보고, 현재의 사건이나 상황은 현재시제로,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은 과거시제로 표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제는 텍스트 안에서 변화하기도 하고 일관적이기도 한다. 이는 시제가 담화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제 분류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것과 과거, 현재 혹은 과거, 비과거로 나뉘게 된다. 시제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인데 과거·현재·미래가 있으며,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 시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 시제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시제를 배우기 전에 우선 한국어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김재열(2003)의 분류체계를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

<표1 한국어의 시제 분류>

시제	형태	의미
과거시제	-았/-었/-였	1) 과거 상태나 느낌 • 그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2) 과거 특정 시점 행위 • 이 도시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3)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한 일 • 나는 어제부터 이 일을 했어요. 4) 현재 완료된 행동 • 그 친구가 막 도착했어요. 5) 과거 완료된 행동 • 내가 그 일을 끝냈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6) 과거 진행된 행동 • 나는 그 친구를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7) 과거 반복된 행동 • 내 아내는 결혼 전에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p>현재시제</p>	<p>-는/-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의 상태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는 캠퍼스가 아름다워요. 2) 현재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서 날마다 6시에 일어나요. 3) 사물의 속성,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선 씨는 잘 웃어요. 아주 착해요. 4) 진행, 반복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지금 식사를 해요. 5) 일반적 사실, 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지구는 태양을 돌아요. 6) 계획된 미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가요.
<p>미래시제</p>	<p>-겠/-으(ㄴ)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장님께서 곧 도착하겠습니다. •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2) 계획이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내일 남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가겠습니다. 3) 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지금 잠을 잘 거예요.(현재 사실의 추측) • 영수는 내일 학교에 오지 않을 거예요.(미래 사실의 추측) •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했을 것입니다.(과거 사실의 추측) 4) 가정된 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여자라면 너무 힘들 거예요. 5) 화자의 강한 의지:-겠- • 당신이 보고 싶을 때 편지를 쓰겠어요. 6) 현장 상황의 의도:-겠- A: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B:설렁탕을 먹겠습니다. 7) 일기예보:-겠 • 오늘 밤부터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시제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과거시제 형태는 ‘-았/었/였’, 현재시제 형태는 ‘-ㄴ/는/다’, 미래시제 형태는 ‘-겠/-으(ㄴ)것’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여기에 시제의 형태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휘적 복합표현들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날, 어제, 1990년대, 오랫동안, 요즘, 지금, 내일, 곧’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시제 표현은 꼭 문법적인 범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시간 표현’이라 불리는 어휘 항목들에게서도 나타남을 알게 된다.

3. 중국인 학습자의 문제점

본고에서 학습자의 시제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표1 한국어의 시제 분류>에 기술한 예문을 바탕으로 60명의 초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제 사용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3.1 과거시제의 문제점

과거시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전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간 표현으로 문장의 종결형, 연결형, 그리고 관형사형에서 나타난다. 이에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의해 실현된다. ‘-았었-/-었었’이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제 오류는 대치, 첨가, 누락, 형태오류 등으로 그 범주를 분류하나 보통 한국어의 시제는 용언의 어미에 나타나므로 본고에서는 용언의 쓰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³

3.1.1 중국어의 영향

< 표 2 과거시제의 문제점 >

	과거	현재	미래
1) 과거 상태나 느낌 • 그 날은 날씨가 정말 <u>좋았어요</u> . 那天的天氣很好(子)	좋았어요 (51) ⁴	좋아요(9)	(0)

³ 언어학적 범주에 따른 분류는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사, 명사, 전치사, 관사 등으로 세분해 나가는 방식이다. 표면 전략적 유형이란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 첨가, 또는 변형이나 어순을 도치함에 따라 표면구조가 바뀌는 양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⁴ 오류 뒤의 번호는 오류를 범한 인원 수를 표시한다.

<표2>는 응답자들이 과거의 상태나 느낌은 과거 시제 어미 ‘-았’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현재 시제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이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상태 동사를 현재로 간주하여 오류를 일으켰고 종결형에 나타나는 오류 유형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시제는 한국어 선어말어미 ‘-았-/-었-/-였-’으로 표시되고 중국어 과거시제는 시제조사 ‘了/的’로 표시된다. 또한 한국어에서 ‘-았었-/-었었’으로 표시되는 대과거시제가 있지만 중국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문법범주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과거시제의 표현에 먼 과거의미를 나타내는 시간어를 붙임으로써 대과거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문에서 상태 동사인 ‘좋았어요’에 해당하는 ‘好了’은 일반적으로 ‘了’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는 자신이 익숙한 중국어 표현으로 한국어를 표현하는 결과로 ‘좋아요’를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형을 써야 할 자리를 깊이 인식하지 않거나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쉽게 현재형을 사용하여 일으키는 오류 현상이다.

단, ‘2) 과거 특정 시점 행위’의 경우에 응답 학생들의 답은 일제히 과거형을 선택하였다.

< 표3 과거 특정 시점 행위 >

	과거	현재	미래
2) 과거 특정 시점 행위 • 이 도시는 1990년대에 <u>만들어졌어요.</u> 這個都市是1990年代建造的.	만들었어요(60)	(0)	(0)

<표3>에서 ‘과거 특정 시점 행위’의 경우는 뚜렷한 과거 시간 표시(‘1990년대’)도 있고, 동작성도 분명하기 때문에 응답자 전원이 ‘만들었어요’를 사용하였다. 단 과거 시제의 피동표현은 정확히 사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과거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 시점 행위에 대한 시제 사용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1.2 용언의 동작시점

< 표4 용언의 동작시점에 대한 문제점 >

	과거	현재	미래
3)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한 일 • 나는 어제부터 이 일을 <u>했어요</u> . 我從昨天開始就做這件事(了)。	했어요(45)	해요(10) 하고 있어 요(5)	(0)
4) 현재 완료된 행동 • 그 친구가 막 <u>도착했어요</u> . 那個朋友剛到(了)。	도착했어요 (48)	도착해요 (8)	도착할 거예 요/ 도착하겠다 (4)
5) 과거 완료된 행동 • 내가 그 일을 끝냈을 때 선생님이 <u>들어왔어요</u> . 我結束那件事情的時候，老師進來了。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 요(53)	들어와요 (4)	들어올 거예 요 (3)
6) 과거 진행된 행동 • 나는 그 친구를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u>기다렸어요</u> . 我在市政府前等那朋友等了很久。	기다렸어요 (54)	기다려요 (6)	(0)
7) 과거 반복된 행동 • 내 아내는 결혼 전에 나를 오빠라고 <u>불렀어요</u> . 我太太在結婚前叫我哥哥(了)。	불렀어요 (52)	불러요(8)	(0)

위의 <표4>는 질문항 3), 4), 5), 6), 7)에 나타난 것처럼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하고 한국어 대역에서 있어서는 과거를 표시하는 ‘了’를 사용하지 않는 데다가 학습자가 과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3)’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 일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두고 학습자가 과거부터 시작된 일과 그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었다는 일의 종료를 감지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류라고 보여진다. 또한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어에서는 과거를 표시하는 ‘了’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가 시점을 표시하는 ‘막’에 해당되는 동작의 완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시제까지도 오류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같은 경우는 일부 학생들이 ‘-(으)ㄹ때’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미래시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번도 마찬가지로 행동이 끝난 시점을 알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7’번은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생긴 오류현상으로 ‘4’)와 동일하다.⁵

3.2 현재시제의 문제점

현재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동사의 종결형은 선어말어미 ‘-는’으로,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이다’에서는 특별한 형태가 발견되지 않아 어말어미 ‘-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또한 ‘합쇼’체 ‘-(스)입니다’와 해라체의 ‘-다’, 해요체의 ‘-아/어/여요’, 해체의 ‘-아/어’앞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실험 결과 현재시제 사용에 있어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5 현재시제의 문제점 >

	과거	현재	미래
1) 현재의 상태나 느낌 • 충남대학교는 캠퍼스가 <u>아름다워요.</u> 忠南大學的校園很美麗。	아름다웠 어요(3)	아름다워요 (57)	(0)
2) 현재 습관 • 저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서 날마다 6시에 <u>일어나요.</u> 我近來學跆拳道，所以每天六點起床 。	일어났어 요(3)	배워요(30) 배우고 있 어요(6) 일어났어요 (21)	(0)

⁵ 간접 오류;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오류, 언어내적 오류;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등 규칙 습득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오류, 발달 오류; 교실이나 교과서와 같은 제한된 경험을 통해 학습자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나타나는 오류

3) 사물의 속성, 성격 • 미선 씨는 잘 웃어요. 아주 <u>착해요</u> . 美善很愛笑, 人很乖。	(0)	착해요(60)	(0)
4) 진행, 반복되는 행위 • 아버지가 지금 식사를 <u>해요</u> .(<u>먹다</u>) 爸爸現在在吃飯。	(0)	먹고 있어요(10) 드세요(5) 먹어요(39) 잡수세요(3) 드시고 있어요(3)	(0)
5) 일반적 사실, 진리 • 하루는 <u>24시간이에요</u> . 一天有24小時。	(0)	-이에요(60)	(0)
• 지구는 태양을 <u>돌아요</u> . 地球繞太陽。	(0)	돌아요(60)	(0)
6) 계획된 미래 행위 •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u>가요</u> . 我們明天去動物園 (我們明天將要去動物園)	(0)	가요(13)	갈 거예요(40) 가겠어요(7)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시제 문항에 있어서는 과거로 인식하는 오류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극히 개인적인 오류로 간주할 수 있겠고6)번 같은 경우는 미래시제와 현재시제가 다 가능한 문항이며 학습자의 선택은 미래시제가 현재시제보다 더 많았다. 즉 응답자가 ‘내일’이라는 용어가 미래시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현재시제로 응답한 사람들은 미래시제를 계획된 일로서 현재시제처럼 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생긴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3.3 미래시제의 문제점

미래시제는 사건시제가 발화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겠’과 관형형 어미 ‘-(으)ㄴ’, 관형사형어미와 의존명사 ‘-것’이 합친 ‘-(으)ㄴ 것’에 의해 표현된다.

<표6 미래시제의 문제점 >

<p>1) 미래 • 학장님께서 곧 <u>도착하겠습니다.</u> 董事長馬上會到達。</p>	<p>도착했어요 (12)</p>	<p>도착해요 (30) 도착하세요 (6)</p>	<p>도착할거예요(6) 도착하실 거예요(3) 도착하겠어요(3)</p>
<p>•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u>있을 것입니다.</u> 明天早上10點會有會議。</p>	<p>(0)</p>	<p>있어요(47)</p>	<p>있을 거예요 (13)</p>
<p>2) 계획이나 의지 • 저는 내일 남대문 시장에 <u>갈 거예요/가겠습니다.</u> 我明天要去南大門市場。</p>	<p>(0)</p>	<p>가요(15)</p>	<p>갈거예요(35) 가겠어요(10)</p>
<p>3) 추측 • 그는 지금 잠을 <u>잘 거예요.</u>(현재 사실의 추측) 他現在應該在睡覺。</p>	<p> 잤어요(2)</p>	<p>자요(45) 자고 있어요(15)</p>	<p>(0)</p>
<p>• 영수는 내일 학교에 <u>오지 않을 거예요.</u>(미래 사실의 추측) 英秀明天應該不會到校。</p>	<p>(0)</p>	<p>오지 않아요(29)</p>	<p>오지 않을 거예요(31)</p>
<p>• 두 사람은 정말로 <u>사랑했을 것입니다.</u>(과거 사실의 추측) 他們之前真的相愛。</p>	<p>(0)</p>	<p>사랑해요 (60)</p>	<p>(0)</p>
<p>4) 가정된 추측 • 내가 여자라면 너무 <u>힘들 거예요.</u> 我要是女孩子的話，那會很辛苦的。</p>	<p>힘들었어요(4)</p>	<p>힘들어요 (45)</p>	<p>힘들었겠어요 (11)</p>

5) 화자의 강한 의지:-겠- • 당신이 보고 싶을 때 편지를 <u>쓰겠어요.</u> 我想你的的時候會寫信的。	(0)	써요(47) 쓰세요(13)	(0)
6) 현장 상황의 의도:-겠- A: 무엇을 <u>잡수시겠습니까?</u> B: 설렁탕을 <u>먹겠습니다.</u>	실시하지 않 았다	실시하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 았다
7) 일기예보:-겠 • 오늘 밤부터는 곳에 따라 흐 리거나 소나기가 <u>오겠습니다</u> 今天晚間起會隨地區，而轉陰 或下起陣雨。	왔어요(10)	와요(50)	(0)

위의 <표6>과 같이 현재나 미래시제가 와야 하는 자리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오류 현상이 몇 개 있다. 이는 바로 1),3),4),7)번의 경우이다. 1)번의 경우는 ‘곧’을 잘 못 인식해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며, 3)번의 경우는 응답자가 ‘자다’를 하나의 일회성 동작으로 인식하여 잘못 쓴 경우이다. 그리고 4),7)번도 비슷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오류현상들은 일부 소수학생들의 극히 개인적인 오류현상이라고 판단된다.

1), 2), 3), 4)의 경우는 현재시제와 미래시제가 다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현재와 미래시제 중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양자택일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2) 저는 내일 남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가겠습니다. 3) 영수는 내일 학교에 오지 않을 거예요.’의 경우는 미래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어 ‘내일’이 존재하므로 응답자가 미래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3.1 동작동사에 대한 인식 부족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1)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의 문항에서 명확한 미래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어가 있음에도 응답자들의 선택은 현재시제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어 학습현장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있다’, ‘이다’와 같은 상태동사는 ‘가다’ ‘오다’와 같은 동작동사에 비해 명확한 시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평소 현재 시제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번 그는 지금 잠을 _____(자다.)’의 경우는 응답자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래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이라는 시간어에 근거하여 현재시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에 기인하여 한국어 시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시제를 써야 할 자리에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3.2 용언의 가정법에 대한 인식 부족

<표7>에서 보면 ‘4) 내가 여자라면 너무 _____(힘들다.)’의 경우는 응답자가 가정된 추측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재시제를 사용했다. 이는 응답자가 가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추측의 의미는 현재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래 가정에 대한 어떤 추측의 결과를 표현할 때 미래시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문에서 주어진 것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작동사보다 그 형태가 더 불분명해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필자는 향후 연구과제로 발전시키기로 한다.

‘5) 당신이 보고 싶을 때 편지를 _____(쓰다.)’의 경우는 응답자가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현재 활동을 나타내는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즉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있어 현재시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3 중국어 화자가 시간어로 시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7) 오늘 밤부터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소나기가 _____(오다.)’의 경우는 응답자 중에서 2명만 과거시제를 썼고, 15명은 모두 현재시제를 썼다. 이는 응답자가 ‘오늘 밤’이라는 시간어를 보고 현재시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제 교수 방안

앞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시제 사용의 몇 가지 오류 유형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오류 원인도 함께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용언의 어미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대한 품사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품사를 혼동하여 생긴 오류들이 많다. 또한 한국어 문법의 의미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불규칙 용언의 활용이 부족해서 생긴 오류도 있다. 그리고 관형사절의 시제 개념이나 동사의 상적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도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시제 사용의 오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제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4.1 한국어 시제 인식의 강화

시제(時制, tense)란 어떤 기준시를 중심으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앞뒤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말한다.

시제는 기준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기준시는 어떤 상황의 시간적 선후 위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때를 말한다. 기준시에는 발화시(發話時)와 사건시(事件時)가 있다. 발화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때이고, 사건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이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절대시제(絕對時制)라고 하고,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상대시제(相對時制)라고 한다.

본고에서 응답자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시제의 사용에 있어서 주로 시간어를 근거로 시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 시간어에 근거한 시제사용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쉽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실제 한국어 학습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간어와 어미를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로 시간어의 의미 비교나 개념 정의를 확

실하게 연습시키거나 발화과정에서 이들 시간어가 용언의 어미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상황설정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어의 시제형태는 서로 다른 언어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학습자가 한국어 시제 형태를 중국어로 충분히 인식되어야만이 올바른 시제 어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 양상을 대조, 분석하는 예문을 통해서 반복적인 활용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2 동작성 여부 판단

‘한가하다’, ‘신기하다’, ‘유용하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등 같은 어휘의 경우, 학습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라체’어미에 있어서 이런 동사, 형용사의 구분이 안 돼서 생긴 오류가 많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화자에게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운 품사구분이 어려우므로 모국어 화자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동사의 구분은 <표8>과 같이 진행상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시제사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동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8 동사 구분의 판단 기준>

상태 동사	판단 기준	판단 결과
피곤하다	+ -고 있다	*피곤하고 있다→(동사 아님)
이다		*이고 있다→(동사 아님)
귀엽다		*귀엽고 있다→(동사 아님)
재미있다		*재미있고 있다→(동사 아님)
있다		*있고 있다→(동사 아님)
나쁘다		*나쁘고 있다→(동사 아님)
좋다		*좋고 있다→(동사 아님)
친절하다		*친절하고 있다 →(동사 아님)
보다	+ -고 있다	보고 있다→(동사)
사랑하다		미워하고 있다→(동사)

좋아하다		좋아하고 있다→(동사)
먹다		먹고 있다→(동사)
마시다		마시고 있다→(동사)
자다		자고 있다→(동사)

4.3 문형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문형’을 통한 한국어 학습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한국어 문장의 기본 품사와 구조를 보여주는 문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단기간에 올바른 외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 제시와 성분 사용의 오류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이들 문형 활용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자리잡으면서 문형이 한국어 교재에 문법항목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문형 교육의 부재는 격조사에 대한 부족, 서술어의 부적절한 사용, 문장 호응의 오류등과 연관되기에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문형 활용면에서 보면 한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한국어의 단계별 정리, 한국어 표준 문장의 단계별 정리, 한국어 문법의 난이도 정리, 오류 유형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제나 용언의 품사에 따른 형태적 복잡성, 관형절에서의 상대 시제의 개념, 상의 의미, 양태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시제 표현을 하나의 공식처럼 문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를 암기하거나 습관화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관용구적인 표현을 집중 연습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명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제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현장에 직접 몸담고 있으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문법의 오류 중에서 특히 시제 사용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현재시제는 현재의 사실, 현재의 진행, 일반적인 진리와 습관의 표현을 나타낸다. 그래서 특히 초급 단계에서 문법이나 문형을 세밀하게 따로 제약을 제시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상의 특징을 더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시제는 동작의 완료, 완료의 지속, 완료된 상태의 지속, 예측 가능한 미래의 표현, 과거 회상 및 과거 완료 표현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 표현으로 선어말어미와 관형형어미에 대한 문형 교육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어의 미래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겠-’과 ‘-(으)ㄴ 것’에 의해 표현된다. 하지만 ‘-겠-’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양태를 나타내므로 화자의 의지와 의도, 미래 상황의 추측, 완료 추측 표현을 나타내고 ‘-(으)ㄴ 것’은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래 사실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시제를 교육할 때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와의 제약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예문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가르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어 시제 사용의 문제점으로는 역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인 학습자들의 올바른 한국어 시제 사용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라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 표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집중 훈련하는 것과 그에 대응하는 어미와 어휘 항목들의 구체적인 제시문이 문형화 또는 교재화 된다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교육 개발 차원에서 시제 교육과 관련한 문형 교재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 고영근(1981). 「중세 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 출판사.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 커뮤니케이션북스.권재일 (1985). 「국어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미옥(2002). “학습 단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통계적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7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상수·송향근(2003), “한국어 교육의 오류 분석 연구 동향분석”, 「이중언어학회」 제 31 호, 이중언어학회.
- 김유정(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분석의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 제16호-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제열(2003). “한국어 교육에서 시간 표현 요소의 문법적 기술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남(2006).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시제 및 연결어미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2호,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김유정(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개인정보 표지 체계와 오류 정보 표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학」 제21호, 이중 언어학회.
- 김정은(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제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차균(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 나은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호, 한국국어교육 학회.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남기심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 민현식(200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 교육」 제14-2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도서출판 하우스
- 상규·유현경·남운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제13-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 석주연·안경화(2003). “한국어 학습자 표현 오류분석의 몇 가지 문제 정의, 확
- 성지연(2002).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일본인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논총」제5권,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인,기 술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 14-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우형식(2003). “한국어 교육과 덩이 형태의 문법 기술: 기능 명사구성의 접속
- 우형식(2003), 「(학습 활동을 겸한) 한국어 문법론」, 부산외국어대학교.
- 우형식(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부산외국어대학교.
- 이승연(2006).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제고”, 『이중언어학』 제31호, 이중언어학회.
- 이윤진(2009).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형 제시 양상”, 『이중언어학』 제39호, 이중언어학회.
- 이은기(2005). “오류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육 방안연구-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익섭 · 남기심(1986).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주행(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판), 월인.
- 이정희(2001).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제18호, 이중언어학회.
- 한송화(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전성 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Keenan, E., & Comrie, B.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Cho, S. (1999).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Experimental studies on Korean.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O’Grady, W., Lee, M., and Choo, M. (2003). A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 443-448.
- Jeon, K. S. & Kim, H.-Y. (2007).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in head-internal and head-external relativization in L2 Korean. Yasuhirō Shirai (Guest Edito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 253 - 276.

< 부록 >

실문지 문항

이름 : ()
1) 그 날은 날씨가 정말 _____.(좋다) 那天的天氣很好(子)
2) 이 도시는 1990년대에 _____.(만들다) 這個都市是1990年代建造的.
3) 나는 어제부터 이 일을 _____.(하다) 我從昨天開始就做這件事(子)。
4) 그 친구가 막 _____.(도착하다) 那個朋友剛到(子)。
5) 내가 그 일을 끝냈을 때 선생님이 _____.(들어오다) 我結束那件事情的時候，老師進來了。
6) 나는 그 친구를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_____.(기다리다) 我在市政府前等那朋友等了很久。
7) 내 아내는 결혼 전에 나를 오빠라고 _____.(부르다) 我太太在結婚前叫我哥哥(子)。
1) 충남대학교는 캠퍼스가 _____.(아름답다) 忠南大學的校園很美麗。
2) 저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서 날마다 6시에 _____.(일어나다) 我近來學跆拳道，所以每天六點起床。
3) 미선 씨는 잘 웃어요. 아주 _____.(착하다) 美善很愛笑，人很乖。
4) 아버지가 지금 식사를 _____.(하다) 爸爸現在在吃飯。
5) 하루는 24 _____.(이다) 一天有24小時。
· 지구는 태양을 _____.(돌다) 地球繞太陽。
6)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_____.(가다) 我們明天去動物園 (我們明天將要去動物園)
1) 학장님께서 곧 _____.(도착하다) 董事長馬上會到達。

<p>•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_____.(있다) 明天早上10點會有會議。</p>
<p>2) 저는 내일 남대문 시장에 _____.(가다) 我明天要去南大門市場。</p>
<p>3) 그는 지금 잠을 _____.(자다) 他現在應該在睡覺。</p>
<p>영수는 내일 학교에 _____.(오다) 英秀明天應該不會到校。</p>
<p>두 사람은 정말로 _____.(사랑하다) 他們之前真的相愛。</p>
<p>4) 내가 여자라면 너무 _____.(힘들다) 我要是女孩字的話，那會很辛苦的。</p>
<p>5) 당신이 보고 싶을 때 편지를 _____.(쓰다) 我想你的的時候會寫信的。</p>
<p>6) 오늘 밤부터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소나기가 _____.(오다) 今天晚間起會隨地區，而轉陰或下起陣雨。</p>

A study on the ways of Korean Tense Education For Chinese speaker

Abstract

The Korean is one kind of agglutinative languages, its tense is mainly expressed by pre-final endings. On the contrary, the Chinese belongs to isolating languages, its tense is expressed by time words, word order and expletive words. And then, although a systematic study had been done on the tense in Korean, but in Chinese the study of the aspect is more developmental than the tense and the expressions of the tense are not systematic. So, for Chinese speaker the tense in Korean language learning need to be focus on.

This study is derived from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intermediate and critical elements in communicative ability. The expressions on time line in Korean have widely influence on the tense, aspect and mood, and even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ed learners make a lot of mistakes on thes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using tense and to enhance the communicative abilit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effect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Korean, Tense, Education, Chinese Speaker

